

# 경희궁 별원(別苑) 함춘원의 실지(實地) 경역 고찰

정우진\* · 홍현도\*\* · 소현수\*\*\*

\*상명대학교 한중문화정보연구소 연구원 ·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 A Study of the Impractical Area and Boundary of an Outer Royal Garden “Hamchunwon” Attached to Gyeonghuigung Palace

Jung, Woo-Jin\* · Hong, Hyeon-Do\*\* · So, Hyun-Su\*\*\*

\*Researcher, Korea-China Cultural Research of Sangmyung University

\*\*Ph.D. Candidate in Architecture, The University of Seoul

\*\*\*Professor,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 University of Seoul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nd understand the area and the original outer boundaries of Hamchunwon(含春苑), which was the outer royal garden of Gyeonghuigung Palace, which existed before the site of the Russian lega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examining the 3 types of drawings prepared for securing the Russian legation's site and constructing a new building, it was confirmed that two low peaks, which appear to be the original terrain of Hamchunwon, existed in the north and south directions inside the site. According to the initial plan of the of the legation's site, it appears that the entrance of the legation building is connected to the Saemunan-ro in the northwest. However, according to the report made at the time when the Russian temporary minister Veber purchased the legation's site, it was recorded that the site already had a narrow entrance and a dirt road in place, and hence, it was connected to Saemunan-ro. This fact makes it possible to learn that the line of movement for officials and the original gate were located to the northwest of the site planned as the entrance of the legation building towards Hamchunwon.

Second, the site was created by cutting the top of the high hill at the time of the construction of the legation building, and as a result, a two tiered staircase typed terrace was built. The ground on which the main building and the secretary's building, etc., were erected was made by cutting the highest peak and solidifying it flat, and a large quantity of soil was used for grading. In the case of the northern area of the main building, the traces of leveling the terrain by cutting the mountains are apparent, and an observation typed garden with a walking path and pavilion was formed by utilizing the physical environment equipped with an easy view. This may be considered as a use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topographical conditions of creating an outer royal garden to block the civilian views on a high terrain overlooking the palace.

Third, Hamchunwon's fences were partially exposed in the photos from the 1880s through the 1890s, which demonstrate the spatial changes made around the US, UK, and the Russian legations. As a result of the photo analysis performed, Hamchunwon occupies the northern area of the Russian legation's site, and it is estimated that the north, west, and east walls of the legation resembled those of Hamchunwon. The area to the south of the Russian legation was originally a place made available for civilian houses, and it was possible to examine the circumstances of purchasing dozens of civilian houses and farmlands according to various materials.

Fourth, Hamchunwon, which was formed as the outer royal garden of Gyeongdeokgung Palace of Lord Gwanghaegun, lost its sense of place as an outer royal garden when the entire building of Gyeonghuigung Palace was torn down and used as a construction members during the reconstruction of Gyeongbokgung Palace, and faded away as the site was sold to Russia

<sup>†</sup> **Corresponding Author** : So, Hyun-Su,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 University of Seoul, Seoul 02504, South Korea. Tel.: +82-2-6490-2848, E-mail : hssu@uos.ac.kr

around 1885. The area where Hamchunwon used to be located transformed into a core space of the Russian legation where the main building and garden were located after the construction of the new building. Hence, Hamchunwon, which was limited to the northern area of the Russian legation, does not carry the temporal and spatial context with Gyeongungung Palace and Seonwonjeon which were constructed after 1897, and it is determined that the view of Seonwonjeon as Baehoorim or Baegyeongrim is not valid.

*Key words: Jeongdong, Path of Emperor Gojong, Royal Refuge at the Russian Legation, Russian Legation, Sangrimwon*

## 국문초록

본 연구는 러시아공사관 부지 이전에 존재하던 경희궁 별원 함춘원의 경역과 본래의 외곽 경계를 고찰한 것이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러시아공사관 부지확보 및 신관 건립을 위해 작성된 3종의 도면을 살펴보면, 부지 내부에 함춘원의 원지형으로 보이는 2개의 낮은 봉우리가 남북 방향으로 존재했음이 확인된다. 공사관의 초기 계획안에는 출입문이 북서쪽 새문안로와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러시아 임시공사 베베르가 공사관 부지를 매입할 당시의 보고서에는 이미 좁은 출입구와 흙길이 있어 새문안로와 통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점은 공사관의 출입문으로 계획한 부지 북서쪽에 함춘원으로 진입할 수 있는 관리 동선과 원문(苑門)이 위치했음을 알게 해준다.

둘째, 공사관의 건립 당시 높은 언덕 상부를 절토하여 대지가 조성되었고 그 결과 2단의 계단식 지형이 만들어졌다. 본관 및 서기관동 등이 세워진 지반은 가장 높은 봉우리를 깎아 평평하게 다짐하여 만들어졌고 이때 다량의 토량이 정지작업에 사용되었다. 본관 북쪽 영역의 경우도, 산지를 깎아 평평하게 지형을 고른 흔적이 역력하고, 조망이 수월한 물리적 환경을 활용하여 산책로와 정자가 있는 전망형 정원이 조성되었다. 이는 궁궐이 내려다보이는 높은 지형에 민간의 조망을 막기 위해 별원을 조성했던 지형 조건과 상통한 이용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미국, 영국, 러시아공사관 주변의 공간 변화를 보여주는 1880~1890년대의 사진에 함춘원 담장이 부분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사진분석 결과 함춘원은 러시아공사관 부지 북측 영역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사관의 북쪽, 서쪽, 동쪽 담장이 함춘원의 담장과 근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러시아공사관 남측 영역은 본래 민간의 가옥이 있던 곳으로서, 여러 자료에서 수십 채의 민가와 농경지를 매입한 정황을 살필 수 있었다.

넷째, 광해군 연간 경덕궁의 별원으로 조성된 함춘원은 경복궁 중건 때 경희궁의 전각을 뜯어서 공사 부재로 사용하면서 별원으로서의 장소성을 상실했으며, 1885년경 러시아에 매각됨으로써 멸실되었다. 함춘원이 있던 경역은 신관의 건립 뒤로 주요 건물과 정원이 있는 러시아공사관의 핵심적 공간으로 변용되었다. 따라서 러시아공사관 북측 영역에 한정된 함춘원은 1897년 이후 조성된 경운궁 및 선원전과 시간적, 공간적 맥락이 닿아 있지 않으며, 선원전의 배후림 또는 배경림으로 보는 시각도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고종의 길, 러시아공사관, 상림원, 아관파천, 정동

## 1. 서론

조선시대 궁원의 독특한 형식인 ‘별원’<sup>1)</sup>은 민간에서 궐내를 조망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궁장 맞은편의 구릉지에 담장을 둘러막은 금원이다. 별원의 시초는 성종 때 창경궁의 건설 직후 대비전의 노출을 의식해 만든 함춘원이었다. 『성종실록』은 창경궁 동쪽의 언덕에 잡인들이 올라 궐내를 들여다보는 행위를 막기 위해 속성수를 심고 담장을 둘러쳤다<sup>2)</sup>는 내용으로 함춘원의 창설을 기록하고 있다. 창덕궁 별원 ‘상림원’도 효종 연간 대비전으로 사용될 만수전을 서쪽 궁장 곁에 건립했을 때 민간의 ‘등망(登望)’이 예상되자 기존 상림원을 새롭게 정비했

다는 내용으로 이전부터 존재하던 별원의 존재를 기록하였다<sup>3)</sup>. 이를 볼 때 별원은 이궁의 건설과 내전 권역의 확장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 영역과의 충돌문제를 해결하고, 왕실 생활공간의 보호 기능에 충실한 완충공간의 성격으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세 번째로 조성된 별원은 신궁의 건설계획에 포함될 정도의 정형화된 제도로 나타난다. 광해군 11년(1619) 경덕궁 공사가 한창일 때 신궐의 풍수적 형세를 가늠하던 술관(術官)은 궁의 남쪽 지형이 우뚝하게 돌출된 것에 주목하여, 창경궁 함춘원과 창덕궁 상림원의 제도와 같이 담장을 둘러치고 수목을 많이 심을 것을 건의하였다<sup>4)</sup>. 이 기록을 통해 경희궁 함춘원이 선행되는 별원의 제도를 준용한 산물이었고 ‘담장’과

‘수목’을 위주로 한 궁원이었음이 파악되지만, 안타깝게도 이후의 기록에서 경희궁 함춘원에 대한 구체적인 연혁을 살피기는 어렵다<sup>5)</sup>. 그런 가운데 19세기 중엽 경복궁 중건 당시 경희궁의 전각을 뜯어 건축 부재로 사용하면서 공궐(空闕)로 변해버린 사건은 함춘원의 존립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때의 경희궁은 몇 개의 전각과 회랑만 남기고 대부분의 영역이 공터로 변해 사실상 궁궐의 지위를 상실한 상황이었다. 덩달아 경희궁의 부속 별원으로 존재하던 함춘원도 유지할 필요성이 사라지게 되었는데, 1885년 조선 정부가 러시아 공사관 베베르(Карл Иванович Вебер, 1885~1895년간 조선 부임)에게 함춘원 부지 전체의 매입을 권유했던 사실은 불용지로 전락한 함춘원의 위상 변화를 잘 말해준다.

베베르의 입장에서 함춘원이 위치한 언덕은 정동 일대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어 공사관 건물을 세우면 돋보일 수 있는 지형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그는 곧바로 본국에 자금을 요청하여 조선 정부로부터 관유지의 명목으로 남아있던 함춘원을 사들였고, 언덕 주변의 민간 소유 필지들을 추가로 매입하여 상당한 면적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리고 ‘궁궐 임압처(臨壓處)’로 규정된 언덕 정상부의 지형을 깎아 르네상스식 빌라 건축 스타일의 웅장한 건축물을 세웠다. 영국, 벨기에, 독일을 비롯한 각국 공사관도 정동에 격조 있는 서양식 건물을 지었으나 러시아공사관만큼 돋보이지 않았는데, 그것은 건물의 규모와 아름다움보다 건물이 들어선 지형 조건에 기인한 것이었다.

이처럼 도성 사방을 훤히 굽어볼 수 있었던 러시아공사관 터는 근 130년을 지나온 현재, 여러 조각으로 잘려나가서 왜소화되고 주변 빌딩에서 부감되는 뜰로 바뀌게 되었다. 과거 궁궐의 지형적 형세를 임압(臨壓)하던 땅이 주변 건물에 임압된 공간이 됨으로써, 함춘원 이래 ‘장소 정체성’으로 회자되던 ‘통망(通望)’의 지형적 위상이 역전된 것이다.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문제는 1960~70년대에 공사관 터의 절반 이상이 분필되면서 발생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여러 필지로 나뉘게 된 자리에는 공사관 탐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 고층 빌딩들이 세워졌다. 1970년에는 지금의 정동근린공원 자리에 법조회관을 신축하면서 되돌리기 어려운 지형변화를 초래했는데, 이상은 특유의 지형 조건에 의해 성립한 함춘원과 그것의 공간 맥락을 승계한 러시아공사관의 장소성이 상실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지금 빌딩숲을 배경으로 서있는 ‘사적 제253호 구 러시아공사관’의 전망탑 주변을 바라보면 조선왕조의 궁원이었던 함춘원이 실존했던 역사는 물론 위풍당당했던 러시아공사관의 모습을 상상해 보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전망탑 하나로 사적지의 역사적 내력을 전달해 주고 있는 ‘사적 제253호 구 러시아공사관’은 본래의 장소성에 대해 엇갈린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러한 모호함은 물리적 환경의 단절에서 오는 시각적 경험뿐만 아니라, 함춘원과 러시아공사관의 장소 정체성이 한 자리에서 명확히 가시되지 않는 ‘공간감의 결여’에 기인한다. 함춘원은 러시아공사관 내부에 함몰된 채로 오랜 시간 변용을 겪어 공간 승계의 지형정보가 사라졌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로만 존재하는 피상적 대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 이유로 실체가 불분명한 경희궁 함춘원[상림원]이 소환될 때면 늘상 ‘장소의 감각상실’ 문제에 부딪히곤 했다.

이제까지 연구에서 함춘원은 러시아공사관의 부지 성격을 언급할 때 과거 ‘상림원’의 터에 건축되었다는 연혁 정보로만 언급될 뿐 실체에 접근하는 진전된 논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상림원과 러시아공사관의 관계를 처음으로 드러낸 김정동(2004)은 도성도의 표현에 따라 함춘원을 ‘상림원’으로 지칭하고 궁궐 후원과 같은 시설로 보았다[1]. 이후의 논의는 대체로 그러한 견해를 따르면서도, 상림원이 1897년경에 건립된 선원전 구역의 후원으로 기능했다거나 경운궁 또는 선원전에 딸린 후원의 성격을 가졌을 것이라 추론하였다[2]. 그러나 인접한 지리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함춘원과 경운궁·선원전과의 관련성은 희박하다. 함춘원이 경희궁의 부속 시설로서 존재를 함께 했을 뿐, 경운궁과 병존했던 기간이 사실상 없었기 때문이다.

근래에는 덕수궁 선원전 복원에 관한 일련의 학술연구에서 상기 통설에 근거하여 상림원을 선원전의 배후림으로 규정된 바 있다[3][4]. 해당 보고서를 살펴보면 선원전 화계 및 배후림의 정비가 상림원을 수복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이 확인되나, 선원전과 상림원 간의 관련성을 단정할 만한 근거는 제시되지 못했다. 선원전 배후의 화계를 상림원의 잔존 형태로 본 견해를 따른다면, 상림원의 영역이 분지되어 선원전이나 러시아공사관에 편입되었다는 결론에 이르지만, 이에 대한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최근 연구는 상림원과 선원전을 긴속된 관계로 보는 통설을 제고하여, 선원전의 배후림이 상림원과 별개로 조성된 독립된 녹지였다는 새로운 의견이 개진된 바 있다[5].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러시아공사관이 건립되기 전에 상림원(이하 함춘원으로 기술)이 어떤 형태와 경계로 존재했고, 그중 얼마만큼이 공사관과 선원전의 영역으로 전용된 것이었는지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sup>6)</sup>.

이상과 같이, 러시아공사관의 공간감이 상실된 상황에서 훨씬 전부터 공간을 점유했던 함춘원의 장소성은 다양한 추론을 야기하는 모호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때로는 함춘원의 장소성이 러시아공사관에 미약하게나마 혼재된 상태로 묘사되기도 하고, 시대착오적인 관계설정에도 불구하고 1897년 이후의 경운궁과 연관지어 ‘후원’, ‘배후림’ 등의 용어으로써 장소의 의미가 부여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경희궁 별원 함춘원의 역사적 의미와 실존을 왜곡하는 것이며, 현실 공간과 사건으로

서의 '자리'를 복원하는 데 걸림돌이 될 뿐이다. 함춘원이 갖는 장소성의 '재발견'과 '재형성'은 외형적 환경의 복원이나 '의도적 의미부여'만이 아닌, 조선시대 이래 정동지역에서 이루어진 역사적 활동의 결과로 형성된 다양한 역사적·문화적 지층을 온전히 살필 수 있을 때 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한 자리에 중층적으로 접목된 함춘원과 러시아공사관 간의 공간 맥락을 읽어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지금껏 학계의 통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러시아공사관 + 선원전 화계 ≤ 상림원'이라는 공간 등식과 '상림원은 경운궁의 후원이자 선원전의 배후림'이라는 견해를 재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 방법은 1900년 이전에 생성된 사진과 도면을 통해, 함춘원의 가능한 영역 경계를 추적해보는 것이 현재로서 가장 유효한 방법으로 사료된다. 그것의 최종 도착점은 러시아공사관의 점용부지에서 함춘원의 층위를 분리하여 그것의 실지 경역을 도면에 표시해 보는 것이다. 다만 한정된 사진자료로 인해 전체 영역이 확인되지는 못하여 분석된 결과에 미세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나, 함춘원 경계의 대략을 파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 II. 연구방법

경희궁 함춘원의 영역 경계를 판단해 보는 작업은 러시아공사관과 선원전의 건립 전후로 촬영된 사진 및 관련 도면을 통해 실지에 가까운 경계선을 도출할 수 있으리라 본다. 1880년대는 함춘원과 맞댄 위치에 각국 공사관이 입주했던 시기였다. 당시 미국·영국·러시아 공사관 측에서 자신들의 공관 건물과 그 주변을 촬영한 사진에는 부분적이거나 함춘원의 모습이 노출되어 있으며, 함춘원을 끼고 입지한 것이 분명한 러시아공사관 관련 자료에도 주목되는 단서들을 찾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러시아공사관 신관 건립을 위해 작성된 평면도와 당시 촬영된 사진 속 담장의 위치를 조응시키는 방식으로, 함춘원의 외곽 선형을 추출해 보았다. 특히 러시아공사관 입주 초부터 촬영된 사진들에서 함춘원의 경계로 볼 수 있는 유의미한 담장의 형태가 나타나므로 정밀하게 분석하였으며, 이를 종합하여 함춘원의 경계를 평면상에 구현하였다.

분석한 사진은 초대 영국총영사였던 월터 힐리어(Walter C. Hillier, 1889~1896년간 조선 부임) 촬영 사진, 러시아 쿤스트카메라(The Kunstkamera) 박물관 소장 사진 등 외국 공사관 소자출(所自出) 자료를 비롯하여, 영국인 이사벨라 버드 비숍(Isabella Bird Bishop), 프랑스인 에밀 부르다레(Emile Bourdaret), 일본 사진작가 이신 오가와(Isshin Ogawa) 촬영 사진 등이 포함된다. 이 중에서 쿤스트카메라 소장 사진의 경우 당시 재조선 러시아 임시공사 및 총영사였던 베베르의 주도로

로 촬영된 자료로 보이는데, 주로 공사관 전경 위주로 촬영되어 있어 신관 건립부지의 상황을 본국에 보고하기 위해 생산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밖에, 미국 사진작가 버트 홈즈의 저서 『Seoul: the Capital of Korea』(1901) 수록 사진, 미국 정치잡지 『Harper's Weekly』 1897년 7월 24일자 수록 사진, 『꼬레아 에 꼬레아니』 수록 사진 등이 제시되었다.

본고에서 다수의 도면 자료가 인용되었으나 유의하여 다뤄진 자료는 1880~90년대 작성된 3종의 러시아공사관 배치도이다<sup>7)</sup>. 분석된 3종의 도면 중 최초로 작성된 것은 1885년 베베르가 외무성에 비용 승인을 요청하며 첨부한 부지 약도로서, 외곽선과 간단한 등고선으로 계획부지의 현황이 묘사된 것이 특징이다. 두 번째는 실제 공사를 위해 1886년에 작성한 최초의 설계안 14건의 도면 중 마지막에 삽입된 배치도이다. 이 설계안은 종래에 일본인 건축가 치오고[쵸고]가 작성한 것으로 보았으나<sup>8)</sup> 여러 자료를 종합해 보면, 실제로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제정 러시아 인사경리국 소속 토목기사 F. 류바노프(Ф. Любянову)가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7)9)</sup>. 다른 한편으로, 1896년 6월로 기록된 보고문건에 서울 공사관 소속 인물인 쉬메인(Е.Ф. Штеин, 1895~1905년간 서울 근무)이 그린 공사관 도면을 본국에 보냈다는 기록도 참조해 볼 수 있으나<sup>8)10)</sup> 해당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마지막 도면은 러시아 건축기사 사바틴(А. И. Середин-Сабатин)이 1899년에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배치도이다. 1890년 사바틴이 선행 설계도를 수정하여 도면을 작성한 것은 베베르의 서신에서 확인되는 부분이다<sup>11)</sup>. 그러나 1899년 작성 배치도는 기실 공사관을 완공한 지 3~4년 뒤의 시점에 그린 현황도이기 때문에 1890년 사바틴이 작성한 설계도는 따로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1899년 도면에 기록된 유용한 정보 중 하나는 정동로의 도로면(0ft)을 기준으로 명기된 각 지점의 상대적인 레벨 수치이다. 특히 등고선이 3ft 단위로 기록되었는데, 원지형으로 추정되는 1886년 도면과 함께 신관 건립 전후의 지형 비교가 가능하다. 본고는 이 세 도면을 통해 함춘원에 관한 공간 정보를 추론해 볼 것이다.

## III. 결과 및 고찰

### 1. 경희궁 함춘원 멸실 전후 정동지역의 공간 맥락

#### 1) 1880~90년대 정동지역의 상황과 수어청(守禦廳)

1880년대는 정동 일대에 외국인들의 근거지가 본격적으로 마련되었던 시기였다. 당시 장로교·감리교의 선교사들은 명례궁으로 불렸던 경운궁 주변에 기지를 정했고, 1883년 미국공사관의 개설을 기점으로 각국의 공사관들이 정동지역에 하나둘씩 입주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은 1897년 미국공사 알렌

(Allen)이 정동지역 조계지를 스케치한 ‘미국공사관 주변 약도 (Rough Sketch of Surroundings & Approaches to U. S. Legation)’에 잘 표현되어 있다(그림 1a). 알렌의 배치도에 따르면, 미국공사관은 해관(海官: 세관)과 수옥헌 사이에 위치하고, 그 주변으로 러시아공사관, 영국공사관 및 선교기지의 영역이 표시되어 있다<sup>12)</sup>. 미국공사관 북쪽에는 ‘정부 연병장 (Government Drill Grounds)’으로 적힌 구역이 보인다. 이 자리는 1897년 이후 영성문(永成門) 대궐로 불렸던 선원전이 조성되었으므로 알렌이 표기한 영역은 선원전 건립 전에 있던 수어청을 지칭한다. 수어청은 조선 후기 경기 속오군을 중심으로 편제된 5군영 가운데 하나로 남한산성과 수도의 방비를 담당한 중앙 군영이었다. 정조 연간에 장용영에 통합되면서 유명무실해졌으며[9], 1881년에는 중앙군이 별기군과 같은 신식 군대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완전히 폐지되었는데, 1897년 알렌의 배치도에 기록된 ‘정부 연병장’은 터만 남아있는 수어청이었던 셈이다. 그런데 아관파천 이후 경운궁의 건립이 구체화되자, 비어있던 수어청 부지는 큰 역할을 하게 된다. 비교적 넓은 관유지가 정동 일대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경운궁의 궁역을 확장한 선원전의 건립부지가 확보될 수 있던 것이다<sup>13)</sup>.

퇴락한 수어청 내부의 모습은 영국총영사로 부임해 있던 윌터 힐리어가 1890년경 러시아공사관 내부에서 촬영한 사진에 잘 포착되어 있다(그림 2a). 이때는 선원전이 들어서기 수년 전의 상황으로 사진에는 영국공사관, 해관, 미국공사관이 수어청과 담장을 경계로 맞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 사진 하단에는 ‘British Legation, Seoul’이라는 메모가 적혀있다. 따라서 그가 촬영하고자 했던 대상은 신설된 영국영사관 1호관과 2호관임을 알 수 있으나, 그보다 수어청의 내부의 모습이 근경에 넓게 잡혀있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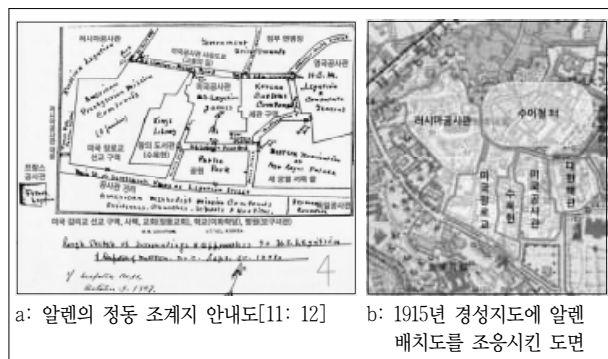


그림 1. 1897년 이전 정동 일대의 토지 활용

사진 속 구 수어청 내부 모습을 일견해보면 병영의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다. 특히 연병장 전체와 경계부 언덕까지 발고랑이 나타나는데, 경희궁 전역에 뽕나무를 심었던 것과 같이 왕

실 소유의 가용한 공지를 농경지로 활용했던 시대 상황이 반영된 장면으로 보인다. 사진 중앙에는 군사훈련을 사열했던 건물인 용무정(隆武亭)과 사열대가 남아있는데, 이곳이 정기적인 훈련이 이루어졌던 수어청이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 건물은 고종이 아관망명<sup>14)</sup>(1896년)으로 러시아공사관에 머물렀던 시기에 시위대와 친위대의 군사훈련에 친림하는 사열대로 활용된 장소였다. 고종의 입장에서 관병식이나 조련(訓練)과 같은 군사훈련은 제국주의 열강의 침탈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독립국 조선의 군사력과 국왕의 통치권을 보여주는 중요한 행위였다. 때문에 경복궁에 임어했을 때에는 신문문 밖에 새로 조성한 경무대가 군사훈련 및 왕실의 행사 장소로 이용되었고, 창덕궁으로 이어했을 때에는 열성조가 문무를 시험했던 후원의 공터인 춘당대가 그러한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1896~7년 고종의 아관 체류기는 국왕의 신변안전 문제와 외부 환경의 불안정으로 궁궐수비대인 ‘시위대’의 육성이 어느 때보다 시급했던 시기였다. 그런 이유로 경운궁 환어 직전까지 국왕 직속 부대였던 시위대 및 친위대의 훈련이 계속되었으며, 러시아공사관과 인접한 수어청 용무정이 훈련장으로 주로 활용되었다.

고종 연간 용무정에서의 조련은 경운궁으로 환어한 뒤로도 얼마간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선원전 공사의 마무리 시점인 1897년 6월에 시위대와 친위대를 사열한 『고종실록』의 기사에서 확인된다<sup>15)</sup>. 고종 36년(1899년) 6월에도 용무정에서 무관학도의 기예를 살펴보았다는 것으로 보아<sup>16)</sup>, 용무정은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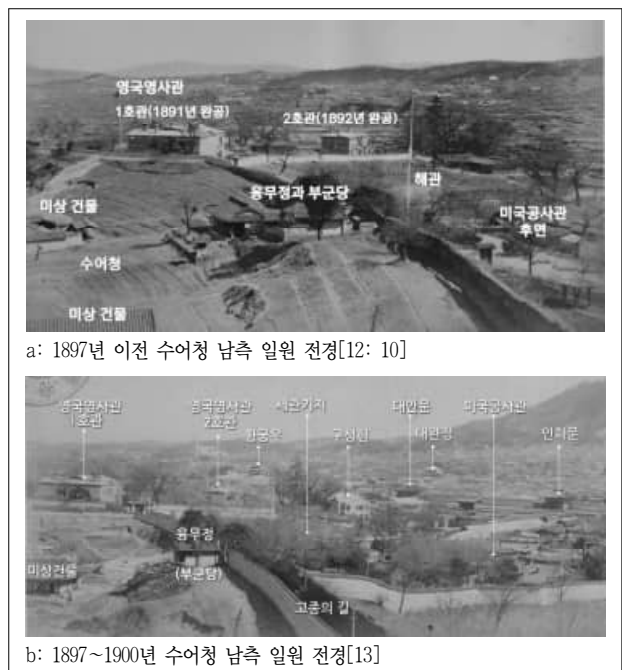


그림 2. 경운궁 선원전 건립 전 수어청 전경  
(b: 『韓國風俗人物史跡名勝寫真帖』 수록 사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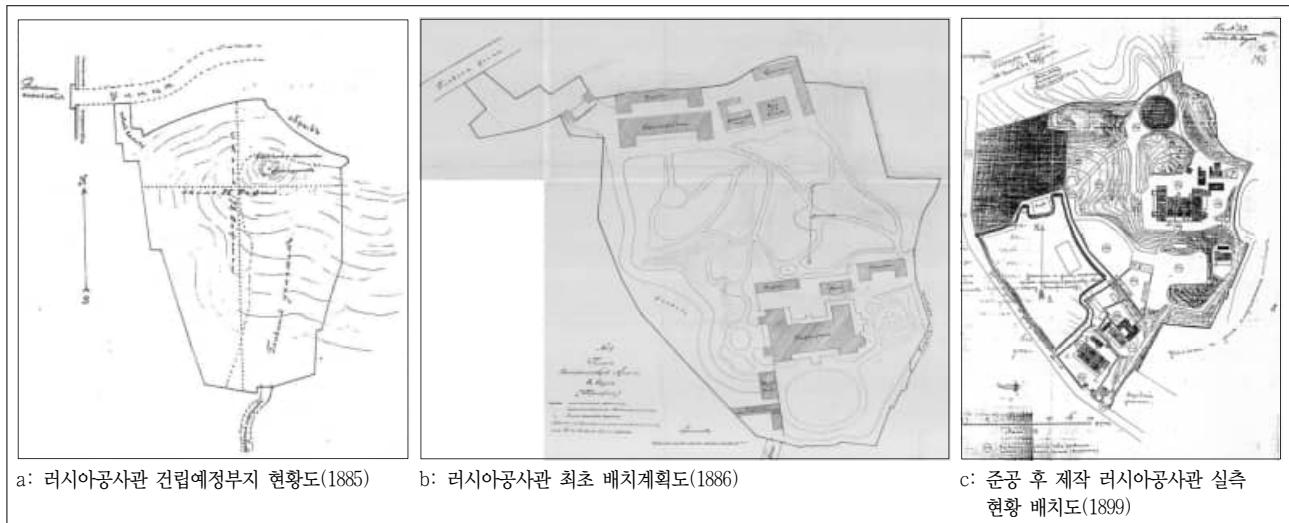


그림 3. 러시아공사관 배치도와 분석을 위해 보정한 배치도  
(자료: 제정 러시아 대외정책문서보관소 소장[18])

관 체류기부터 1899년까지 시급한 군사훈련<sup>17)</sup>을 시행할 장소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선원전이 완공되어 열성어진을 옮겨오자 용무정에서의 조련은 시행되지 않았고, 경운궁 대안문과 평성문 안쪽 공간이나 공터로 남아있던 경희궁이 군사훈련의 장소로 이용되었다<sup>18)</sup>. 이 시기 용무정의 모습은 1897년 이후에 촬영된 한 장의 사진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국풍속인물사적명승사진첩(韓國風俗人物史跡名勝寫眞帖)』 수록 사진에는 선원전 및 흥덕전의 건립을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정지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난다(그림 2b). 기존의 농지가 모두 제거되고 용무정도 철거되어 있는데, 용무정 뒤편의 부군당으로 추정되는 작은 뒤채만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건물은 용무정의 본체가 뜯겨 나갔어도 한동안 용무정으로 불려졌으며, 선원전이 완공된 뒤로도 존치해 있었던 정황이 『덕수궁배치도』에 남아있다. 그런가 하면 용무정 배후에 신설된 담장 아래에는 경운궁과 러시아공사관을 잇는 고종의 길이 보인다. 담장으로 둘러싸인 이 협로는 유사시에 러시아공사관으로 피할 수 있는 통로이기도 했지만, 북쪽으로 운교와 연결되어 있어 궁 내부에서 경희궁으로 곧장 거동하는 동선으로 사용되었다.

## 2) 함춘원에 러시아공사관의 건립 경위

정동지역에 자리한 러시아공사관은 1890년에 착공되어 1895년에 완공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부지는 1888년 조로육로통상장정(朝露陸路通商章程)에 명시된 영사관 설치규정에 따라 조선 정부로부터 매입한 땅이었다. 그 위치는 북쪽으로 돈의문로[새문안로]와 경희궁이 있고, 동쪽으로 수어청과 맞대고 있는 언덕이었다. 그런데 여러 자료를 검토해 보면 러시아공사관 부지는 기존 함춘원의 영역 전체를 포함했던 것으로 나타난

다. 즉, 관유지였던 함춘원 말고도 민간 소유의 여러 필지를 매입하여 공사관 부지를 확보한 것인데, 그 경위는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러시아가 처음 정동지역에 공사관을 개설한 시기는 1884년 수호조약이 체결된 이듬해였다. 1885년 러시아가 처음으로 개설한 임시공사관은 미국공사관과 영국총영사관과 인접한 곳의 한옥으로 함춘원 바로 아래에 위치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잘 알려져 있듯, 공사관 부지의 선정은 베베르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주청러시아대사 베베르는 조선과 국교를 맺기 위해 1884년 조선에 들어왔을 때, 상주 공관의 자리로 각국 공사관 건물들이 밀집해 있는 곳의 낮은 언덕을 눈여겨보았다. 그가 점찍은 자리는 “각국 공사들이 밀집해 있어 긴밀히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서울에서 외국인들의 활동이 이 일대에 집중되어 있어 장차 외국인 조계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었다[15: 263-266]. 베베르가 1885년에 작성한 보고서에는 이러한 입지환경을 두고 “서울에서 좋은 공사관 부지를 찾아냈다. 바로 작년에 서울에 체류할 때 심중에 두었던 언덕이다”[8]고 하여, 공사관이 들어서기에 더없이 좋은 여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였다.

곧바로 베베르는 조선 정부에 해당 부지를 사용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듬해 재조선 러시아 대리공사 겸 총영사로 부임 부임해 와서는 조선 정부의 협조하에 함춘원 아래에 임시공사관을 개설하는 것으로 공사업무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임대한 건물은 부지가 협소하기도 했지만 낡고 퇴락하여 당장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본국에 자금을 받아 보수가 이루어졌다고 하며, 그와 별개로 상주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부지 매입 자금을 요청하였다. 당시 베베르가 본국 외무부에 보낸 여러 건의 전문에 따르면, 조선 정부가 미국공사관과 영국총영사관이

근방에 자리한 언덕 주변을 포함한 약 2ha를 2,200달러에 매입할 것을 제의해 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8]<sup>19)</sup>. 특히 전문에 공사관 건립 예정부지의 약도가 첨부되었는데, 이상의 경위는 1885년 베베르가 작성한 다음의 글에 잘 요약되어 있다.

“서울에서 좋은 공사관 부지를 찾아냈다. 바로 작년에 채류할 때 심중에 두었던 언덕이다. 이 언덕에서 좀 떨어진 낮은 곳에는 미국공사관, 영국총영사관 그리고 외국인 가옥이 몇 채 있다. 서울에서 곧 외국인 조제지가 되리란 기대를 예상할 수 있는 지역이다. 서울에 없는 동안 다른 사람이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조선 정부는 이전의 구입요청을 상기고 이제 매입할 것을 제의해 왔다. 그 언덕 주변 인접지를 모두 포함하여 약 2헥타르 면적에 매입가격은 2,200달러다. 상세한 도면은 유감스럽게도 시간과 제도가 없어 제작하지 못해 대략 표시한 도면을 동봉한다. 출입구는 좁고 진흙색길이 그 언덕을 두루 감고 있어 대궐과 외아문(外衙門)으로 가는 북쪽 대로와 연결된다[8].”

그가 염두에 둔 ‘주변 인접지를 포함한’ 부지의 영역은 임시 공관으로 사용되던 몇 채의 한옥을 비롯하여 조선 정부로 매입한 언덕이 큰 덩어리를 이루고 있었다. 그밖에 북쪽과 서쪽의 민가와 밭을 추가로 매입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노국 영사관 재산관리 관계서류』의 기록철 중 영문으로 작성된 『보관목록여각』<sup>20)</sup>에 따르면, 공사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1885년에서 완공 직전인 1894년까지 각각 다른 지주로부터 19개의 필지 매수한 것으로 나온다[17]. 즉, 조선 정부로부터 구입한 함춘원의 언덕 말고도 다수의 택지, 임야, 농지를 사들여 공사관 부지를 마련했던 것인데, 이는 함춘원을 훨씬 초과하는 면적이 공사관 부지로 성립된 경위를 잘 말해준다.

실제 위에서 언급된 ‘2ha(약 20,000㎡)’는 같은 기록철인 『재조선 노국 소유 부동산 조서』에서 러시아공사관 부동산(정동 15-1번지)의 면적으로 명기된 6,194.2평(약 20,476㎡)과 근사한 수치이다. 즉, 함춘원으로 존재하던 관유지가 러시아에 통째로 매각되어 공사관 부지의 상당 부분을 이루고 있던 것이다. 이미 함춘원이 경희궁의 철거와 함께 필요성이 상실되어 버린 마당에 불용지로 전락한 임야가 왕실의 재원 확보를 위해서라도 처분의 대상이 되어 있었던 사정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 게다가 함춘원은 왕실 소유로 민가가 없는 공지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상 문제없이 매입 가능하다는 이점도 있었을 것이다. 이상의 정황대로라면 러시아공사관 부지는 함춘원의 영역을 훌쩍 넘어서는 면적이 확보된 상황에서 그 경계가 정해진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 3) 러시아공사관 배치도로 추론된 함춘원의 공간 정보

러시아공사관 건립 전 함춘원의 지형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의 문서는 1885년 베베르가 그렸다는 스케치 도면이다. 이 약도는 위 인용문에 나오는 것처럼, 매입이 요구되는 필지들이 합필(合筆)된 면적이 반영된 것으로서, 계획 부지의 외곽선뿐만 아니라 간략한 등고선이 표현되어 있어 공사관이 건립되기 전의 대략적 지형정보가 나타나 있다. 도면에 표현된 등고선은 북쪽과 동쪽이 높고 서남쪽으로 점차 낮아지는 형태이다. 동북쪽에 나타난 최고점 봉우리가 다소 북쪽으로 치우치기는 했지만, 뒤에 작성된 두 종의 배치도의 등고선과 비교해 유사한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어, 현장에서 파악되는 지형 상황을 표현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도면에서 등고선이 진행을 멈춘 영역 곧, 공사관 내부 남쪽과 서쪽의 부분에 나타난 인위적으로 땅을 고른 평평한 지대는 민간 택지의 흔적으로 보인다. 이 지점은 본래 민가와 밭이 있던 영역으로서 함춘원 영역에 포함되지 않은 공간으로 읽혀진다.

특히 이 도면에서 유의해서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새문안로 쪽으로 난 출입구의 위치가 북쪽에 표기된 점이다. 이와는 달리 완공된 공사관의 출입문과 진입로는 정동로와 통하는 남쪽에 만들어졌다. 당시 촬영된 사진을 보면, 남쪽 일대에 민가가 언덕 고점 아래까지 자리 잡은 상황이었고, 주택 사이의 좁은 도로에 러시아 게이트로 불렸던 아치형 문이 설치되었다. 그러나 1885년 도면에는 공사관 건립의 구상 단계에서 고려된 진입 동선의 위치가 민가 지역의 기존 도로가 아닌 경사가 가파른 북쪽 지대에 있다. 그렇다면 베베르가 처음 진입로의 위치를 잡을 때 새문안로와 통하도록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배치도 상 등고선의 표현을 고려해 본다면, 공사관 북쪽에서 이 지점의 지형이 상대적으로 낮고 경사가 완만한 편이라 출입구를 만들기에 다른 곳보다 양호한 조건을 가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여기에 정문을 세운다면 돈의문을 통과하는 대로에서 곧바로 진입할 수 있으며, 민가를 회피하여 길을 내기도 수월했다는 장점도 있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위치에 애초부터 함춘원으로 진입하는 관리 동선과 원문(苑門)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함춘원이 경희궁의 별원이었다면 ‘개양문 남쪽 언덕에 있다’는 종래의 위치 인식과 같이 웅당 진입로가 경희궁 남문인 개양문과 인접한 곳에 있어야 한다. 사실 언덕 반대편의 정동길과 연결된 곳에 함춘원의 옛 출입문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게다가 도면에서 민간 취락이 형성된 함춘원 남쪽 일대가 당시 담장으로 가로막혀있던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베베르의 최초 구상 당시에는 남쪽에 정문을 두는 방안이 고려되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1885년 작성 도면에 표시된 공사관 정문과 진입로의 구상안은 기존 부지 여건이 반영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윗글에서 베베르가 기록한 바와 같이, 부지에 ‘좁은 출입구와 언덕을 빙 두른 진흙길이 있어 북쪽 대로와 통한다’는 상황 묘사 역시 이를 방증해 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한편 1886년 작성된 설계안의 경우, 최초의 구상이 구체화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를 1899년 배치 현황도와 비교해 보면 많은 차이점이 간취되는데, 몇 가지 주목되는 변화는 다음과 같이 짚어볼 수 있다.

첫째, 전술하였듯 최초 설계안에는 진입로와 대문이 북쪽에 위치했다. 1866년 배치도를 보면 외곽에 두 개의 실선이 나타난다. 하나는 검은색 점선으로 표현된 선이고, 또 하나는 노란색 실선으로 그려졌다. 이 같은 두 종의 실선은 각각 매입될 필지가 합산된 부지 경계와 신축 담장의 선로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도면의 담장 외곽선에는 정문을 비롯하여 남쪽과 동쪽에 각각 작은 문이 표기되어 있다. 그런데 1899년 실측 배치도를 보면 정문이 남쪽 작은 문의 위치로 옮겨졌고 동쪽의 작은 문은 고종의 길과 통하는 협문으로 나타난다. 반면 본래 정문의 위치로 계획된 북서쪽 모퉁이는 담장으로 막혀있다. 이렇게 변경된 이유는 등고선이 알려주는 지형정보를 통해 추정이 가능하다. 부지 북쪽으로 새문안로와의 고저차가 심했기 때문에 차선택으로 남쪽 민가 사이의 도로가 진입로로 결정된 것이다. 남쪽 일대는 지형이 비교적 완만하여 주택들이 계단식으로 자리 잡은 상황이었고 이미 적지 않은 너비의 도로 폭이 확보되어 있었으므로 경사가 가파른 북쪽에 비해 진입에 유리한 조건이었을 것이다.

후문<sup>21)</sup>으로 만들어진 동쪽 협문의 경우, 오늘날 ‘고종의 길’로 불리는 미국공사관의 이면도로<sup>22)</sup>와 연결된 것이 특징이다. 규모는 작으나 이 문이 가지는 기능은 정문에 버금갈 정도로 중요했다. 우선 아관망명 당시 고종은 이 후문을 통해 공사관으로 피신했다고 전해진다. 고종의 길은 양쪽으로 담장이 가로막고 있어 통로의 역할만 부여된 형태로 만들어졌다. 때문에 이 협로는 러시아공사관과 경운궁을 연결하는 전용 동선으로 사용되어 유사시 주둔하고 있던 러시아군대가 고종의 신변을 보호하는 안전장치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14]. 당시 고종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러시아공사관에 피신처를 구하는 한편 러시아공사관 수비병이 신속히 궁내로 진입하여 군사적 비호를 제공해줄 것으로 믿었다. 경운궁의 조영과 환어의 전제 조건은 러시아공사관 수비대가 늘 근접해 주둔해 있고, 일본의 위협으로부터 러시아의 비호를 받는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고종이 경운궁으로 환궁을 결심한 것은 사실상 ‘아관 망명지’의 연장 조치에 지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14: 651]. 1896년 6월 본국에서 베베르에게 보낸 전문에 보이는 아관 수비병의 ‘경운궁 경호 요청<sup>23)</sup>’은 바로 경운궁과 러시아공사관을 잇는 통로와 후문이라는 장치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처럼 러시아공사관은 기존의 도로체계를 활용하여 문의 위치가 정해졌으며, 그 결과 정문을 통해 각국 공사관과 외국인 거류지가 모여 있는 정동길과 연결되고 후문이 경운궁과 경희궁과 통하게 되는 진입 체계가 구축될 수 있었다(그림 4). 경운궁으로 환어한

뒤로는 고종의 신변안전 문제가 더해져 러시아공사관을 잇는 동선이 중요해졌는데, 이에 따라 셋길에 불과했던 고종의 길은 러시아공사관과 경운궁을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로 활용되었다. 이상과 같은 러시아공사관 배후의 문과 도로의 체계는 19세기 말 고종과 러시아 간의 밀착된 관계를 반영한다.

둘째, 최초 설계안과 준공 후 도면에서 건물의 배치가 달라진 것도 큰 차이점이다. 최초 설계안에서는 본관 영역과 서기관 영역이 남북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 사이로 부지에서 가장 높은 언덕이 위치하도록 계획되었다. 즉, 큰 봉우리의 지형을 회피하여, 양단으로 나누어 건물이 배치된 것이다. 물론 북서쪽정문의 위치를 반영한 설계안이 있었지만, 베베르가 본국에 보낸 서신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난 비용과 인력의 부족 문제를 감안해 본다면, 비용 절감을 위해 토공사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일찌기도 한다. 이후 재정 문제로 공사가 수차례 연기된 끝에 1890년에 착공에 들어갔는데, 1899년 작성된 실측 배치도에 따르면 본관 건물이 최고봉 바로 아래에 건립되었고 건물 수가 축소되어 서기관동을 비롯한 3채의 부속 건물이 인접하여 세워진 점이 확인된다. 공사가 연기되는 동안 초기 설계안이 수정된 것인데, 이 역시 공사비 절감의 이유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러시아공사관의 2개소 문의 위치와 인접 도로체계  
(『러시아공사관 배치도』(1899)와 『덕수궁사』 수록 『덕수궁배치도』(1908)를  
접친 도면에 작성)

주: 고종의 길은 피난로의 역할에 국한되지 않고 1902년 윤교를 거쳐 경희궁으로 건너가는 연계동선으로 확장된다. 『덕수궁배치도』에서 윤교까지 연장된 길의 형태를 살펴보면 꺾이고 굽은 모양이다. 이런 형태는 러시아공사관 동북쪽 외곽의 선형과 정확히 일치하는데, 공사관의 외곽 담장에 밀착하여 길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두 도면에서 등고선으로 표현된 영역은 함춘원의 원지형을 나타내는 동시에 산지에 한정된 공간에 함춘원이 존재했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두 도면에 나타난 지형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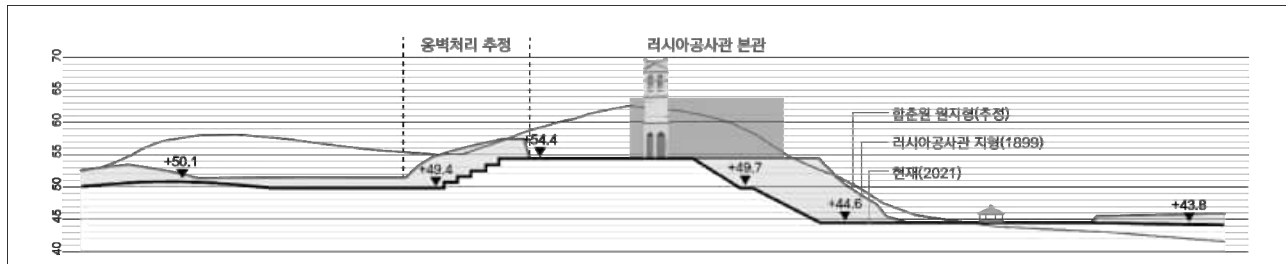


그림 5. 함춘원 원지형, 러시아공사관 건립 지반, 현지형 간의 단면 비교

해 보면 등고선의 상황은 대체로 유사하다. 부지 내부에는 남북으로 2개의 봉우리가 공통적으로 존재하는데, 마치 낙타 등 모양의 단면을 형성했던 것으로 보인다(그림 5). 1899년 배치도에서 북쪽 봉우리에는 '65ft'로 적혀있고, 남쪽의 높은 봉우리에는 '75ft'로 표기되어 있다. 이는 봉우리 상층부를 절토한 결과를 표현한 것이므로 원지형은 그보다 높았을 것이다. 건물이 건립된 지반은 2개소로, 공사관이 건립된 지점에 '60ft', 그 아래 마사(馬舍)가 있는 곳은 '30ft'로 표기되어 있다. 이 두 곳은 언덕을 깎아 땅을 평평하게 고르는 등 지형변화가 심하게 이루어진 지반이다. 특히 본관 북쪽 75ft의 지점에는 등고선이 조밀하게 겹쳐있다. 이 부분은 언덕 상부를 절토하여 건물이 들어설 지반을 만들었음을 알려주는 도상으로서, 옹벽이나 축대의 구조물이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단서를 종합하여 공사관 건립 당시 지형변화를 유추해 보면 다음의 결론에 이른다. (1)언덕을 절토한 흙은 대지 조성을 위해 계단식 지형을 만드는 데 쓰였다. (2)이때 절토량의 상당수는 수평층쌓기로 다짐하여 가용한 대지의 면적을 넓히는 데 사용되었을 것이다. (3)하부 지반에도 상당한 토량이 옮겨져 땅을 고르는 데 성토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4)상기 토공사의 과정을 거쳐, 러시아공사관의 대지 조성은 '75ft' 높이의 산을 깎아 만든 2단의 계단식 지형으로 귀결되었다.

넷째, 남쪽의 30ft 높이로 조성된 평탄지의 경우 기존에 민가와 밭이 있던 영역으로, 대지 조성이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최초 계획도면에서 남서쪽에 평지로 조성된 곳이 '밭'으로 표기된 만큼, 함춘원의 본래 영역이 등고선으로 표현된 부분에 한정되었을 여지는 충분하다. 부지의 남측 영역이 상당한 토공사로 대지 조성이 이루어진 반면, 도면상 본관 북측 영역의 경우 순환 동선을 내는 것 말고는 지형에 크게 손을 대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이 일대는 건물이 들어설 곳이거나 특별한 쓰임새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원지형을 심각하게 파헤치지 않았을 것 같으나, 1886년, 1899년의 두 도면을 비교해 보면 북측 영역도 상당히 절토된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이 부분은 일부 존치된 지형과 식생을 적절히 활용하여 정원이 조성되었다. 1899년 현황도에는 이 위치에 원형(圓形)으로 경계석을 두른 구역과 전망대로 추정되는 시설 그리고 산책로가 그려져

있다. 이를 볼 때, 공사관 북쪽으로 전망이 좋은 이점을 살려서 도성 경관을 감상하며 산책하는 공간이 마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통망궐내처'로 대변되는 조망 정체성을 가진 함춘원 부지의 특징이 전망형 정원으로 연속된 점에서 특징되는 부분이다.

## 2. 함춘원의 경계와 영역

상기 1885년, 1886년, 1899년에 제작된 세 도면을 비교 검토 해 보면, 당시 러시아공사관 부지가 기존 함춘원의 영역을 포함한 면적에 조성된 단서가 노출되어 있다. 공사관 북측 영역과 동서 양측 사면은 본래부터 민가가 들어서기 어려운 낭떠러지가 있던 곳이었으므로, 적지 않은 지점이 함춘원의 경계와 일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베베르가 1886년 본국에 보낸 보고서에서 "이 공간 전체를 에워쌀 벽돌담 비용은 총길이를 1,718피트로 가정할 경우 3,376달러 24센트"로 계산한 내용을 볼 때 [7: 89], 공사관 부지의 담장을 새로 조성한 정황도 포착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외곽선의 대략적인 수치를 제시한 것일 뿐, 당시까지 존치해 있을 함춘원 담장의 실존 유무와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위 결과를 바탕으로 함춘원의 담장 또는 러시아공사관의 담장이 나타난 사진 자료를 통해 함춘원의 영역 경계를 추정·검토해 보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고려된 전제는 세 가지 관점으로 요약된다. 첫째는 '함춘원의 영역'이 주위를 담장으로 두른 공간 내부로 한정된다는 것이며, 둘째는 함춘원의 영역과 민간의 영역이 임야와 주택지로 명확히 구분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 전제는 촬영 시기와 위치가 조금씩 다른 사진에서 상호 공간적·시간적 맥락을 비교해 볼 수 있는 단서들이 노출되어 있고, 그 단서들을 조합하면 함춘원의 본래 경계를 귀납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예상되듯이 러시아 총영사관이 입주했던 1885년 전에 촬영된 경희궁 함춘원의 사진은 찾을 수 없다. 그러나 공사관 신관이 건립되기 이전 시점에 공사관 부지가 노출된 몇 장의 사진에서 함춘원 담장의 편린이 포착되어 있으며, 공사관 완공 직후 촬영된 사진 중에서도 함춘원의 본래 원장과 관련성이 큰

표 1. 함춘원 담장이 가시된 사진 자료











사진 구분	촬영 위치	촬영 시기	사진 자료	1899년 배치도상 담장의 위치
A	배재 학당 부근	1886년		
B	이화 학당 부근	1885~ 1890년		
C	배재 학당 부근	1890~ 1891년경		
D	경희궁 내부	1897년경		
E	러시아 공사관 내부	1895년 이후		



그림 6. 1886년, 이신 오가와 촬영 정동 일대 파노라마 사진(Smithsonian 박물관 National Anthropological Archives[20])

것으로 추정되는 담장들도 발견된다. 개중에는 일부 구간에 옛 담장이 존치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는데, 모두 함춘원의 실지 경계를 추정하기 위해 정밀한 분석이 필요한 장면들로 여겨진다. 여기서는 중요한 단서가 포착된 몇 장의 사진들에서 함춘원의 경계시설로 여겨지는 담장을 찾아보고, 그 결과를 1899년 공사관 배치도와 조응시켜 해석해보고자 한다.

#### 1) 함춘원 남쪽 담장: 사진 A

표 1의 사진 A는 일본인 사진작가 이신 오가와(Isshin Ogawa, 小川 一眞)가 1886년 촬영한 3장의 파노라마 사진 중 하나이다. 촬영지점은 정동지역을 넓게 담은 구도로 볼 때 배재학당이 있던 언덕 부근으로 보인다<sup>24)</sup>. 연속된 세 장의 사진을 붙여보면, 전면에 미국공사관과 정동로가 있고, 우측으로 한옥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영국영사관을 비롯하여 수어청 동측 영역이 나온다(그림 6). 러시아공사관이 가시되는 위치는 사진 좌측에 나타난 언덕 일대로서, 일부 지점에서 함춘원 남쪽의 담장 일부가 존치되어 있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사진 속 러시아공사관이 있는 언덕의 정상부에는 공사관의 영역임을 알리는 게양대와 깃발이 인상 깊게 관찰된다. 이때는 한옥을 임대하여 공관으로 사용하던 시기로, 임시 공관의 위치는 분명치 않다. 언덕 정상 바로 아래에는 담장이 가로로 방향으로 진행되다가 허물어진 부분이 나타난다. 바로 함춘원의 원장으로 추정되는 담장이다. 그 아래로는 구불구불한 담장들이 세로 방향으로 뻗어 있기도 한데, 함춘원의 담장으로 보기에는 정연하지 않아서 밭이나 민가가 있던 자리가 아닐까 한다. 그 좌측에는 세로 방향으로 좀 더 높고 견고한 또 다른 담장이 희미하게 나타나는데, 이것 역시 함춘원의 담장으로 파악된다. 또한 사진의 왼쪽 끝에 나타난 가로로 진행하는 양호한 상태의 담장도 함춘원의 원장으로 추정된다. 평면상 위치는 대략 공사관 건물 서쪽 일대에 해당되며, 담장의 진행 방향이 건물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지만 우측에 위치한 세로 방향의 담장과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처럼 3개소에 나타난 담장은 다른 사진과의 비교를

통해 대략적인 위치를 판별해 볼 수 있다. 먼저 동일한 시점장에서 촬영된 이사벨라 버드의 사진의 경우(그림 7), 배경에 나타난 인왕산의 스카이라인이 정확히 겹쳐질 정도로 촬영 구도가 근사하다. 약간의 보정이 필요하겠지만 두 사진을 조응시켜 보면 함춘원 담장이 공사관 본관 건물이 있는 지반 부근에 위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1891년경 공사관의 공사 과정을 촬영한 사진에도 비교할 만한 단서가 남아있다(그림 8). 사진에서 공사 중인 본관 건물 남쪽 사면에 수목 몇 그루가 보이는데, 1886년 사진 속 담장 주변으로 수목이 듬성듬성 남아 있어 신축공사 장면 속 수목과 대조해 볼 수 있다(그림 9). 보는 각도에 따라 수형이 달라지기도 하고 5년가량의 시차가 존재하지만, 함춘원 담장 아래에 있던 수목의 개수가 제한적으로 거의 1:1로 대응해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함춘원 남쪽 담장의 위치는 본관이 들어선 평평한 지반 위까지 올라간다. 보기에 따라 담장의 선열이 본관 건물을 통과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대로라면 함춘원은 공사관 부지의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면적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진에서 함춘원 남쪽 담장 턱밑까지 민가가 조밀하게 들어서 있고 공사관 본관과 함춘원 남쪽 담장의 위치가 근접한 결과로 미루어 본다면, 적지 않은 주택 필지가 공사관 부지 안에 포함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7. 1891년경, Isabella Bird 촬영 러시아 공사관 전경(National Library of Scotland 소장)[21])



그림 8. 1891년경, 러시아공사관 신축공사 장면(Kunstkamera 박물관 소장)[22]



그림 9. 1886년 촬영 사진에서 함춘원 담장 확대

셋째, 담장의 무너진 상태와 민둥산으로 변한 함춘원 언덕 정상부의 모습은 통념적인 별원의 형상과 적지 않은 괴리를 보여준다(그림 9). 당시는 베베르가 함춘원 부지를 양도받은 지 불과 1년 정도가 지난 시점일 것인데, 사진에서 수목이 무성한 별원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즉, ‘경희궁 개양문 밖 함춘원’ 또는 고지도에 표기된 ‘상림원’의 도상을 증명해 주는 울창한 산림의 형상과 견고한 담장은 온데간데없고, 폐허로 변한 별원의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도성 일대의 산이 연료목의 별채로 벌거숭이가 되었던 시기였고 경희궁이 폐궁으로 변한 뒤로 별원으로서의 위상을 상실했던 점을 감안해 본다면, 사진과 같이 황폐한 장면은 불용지로 전락한 함춘원이 방치되다시피 하다가 러시아에 매각된 경위를 대변해 준다.

## 2) 함춘원 남서쪽 및 북서쪽 담장: 사진 B

사진 A와 촬영된 시기가 비슷한 러시아 쿤스트카메라(The Kunstkamera) 박물관 소장 사진 B는 근경에 러시아공사관 건립 전 진입로의 상황을 담고 있다. 이 사진은 베베르가 서울에 공관을 마련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촬영된 것이다. 공사관 부지의 전경 위주로 구도를 잡은 것으로 보아 신관 건립 예정지의 여건을 본국에 보고하기 위해 촬영한 사진이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사진 아래에 적힌 “한국, 서울에 있는 러시아공사관

건물을 위해 구입한 장소(Корея, Место, приобретенное для русской миссии в Сеуле.)”라는 설명에서 확인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 사진은 조선 정부로부터 함춘원 부지를 매입한 직후에 촬영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일단 사진 B에는 함춘원 남쪽 원장이 근경에서 포착되어 있다. 러시아공사관이 차지한 낮은 동산 아래로 민간 주거지가 조밀하게 형성되어 있고, 민가와와 경계부에 함춘원의 본래 담장으로 여겨지는 담장 일부가 확인되는 것이다. 조선 말에 이르러 함춘원 담장까지 민가가 자리 잡은 상황으로, 당시 함춘원 담장이 민가의 확장·점유로부터 별원의 중요 지형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방편으로 기능하였음도 미루어 확인해 볼 수 있는 장면이다.

사진에 나타난 함춘원의 담장은 3개소에서 보인다. 하나씩 짚어보면, 사진 좌측으로 함춘원 북동쪽 담장과 남동쪽의 담장 일부가 위아래로 함께 나타나며, 언덕 중앙에는 세로로 올라가다 동쪽으로 꺾인 담장도 보인다. 그 동쪽으로는 수어청 내부 시설로 보이는 담장의 일부 형태도 나타난다. 이러한 담장의 편린을 러시아공사관 배치도와 대조해 보면, 앞서 살펴본 사진 A의 결과와 거의 맞아떨어진다. 사진 A에서 언덕 아래의 허물어진 담장이란지 세로 방향의 담장은 사진 B에서도 각도를 달리하여 확인되는 부분이다. 이를 배치평면도에 옮겨보면 함춘원 남쪽·북쪽 담장들은 모두 공사관 부지 내부에 위치하여, 함춘원의 전체가 러시아공사관에 편입된 사실이 재차 확인된다.

한편 1901년 같은 위치에서 버튼 홈즈가 촬영한 사진에는 민가 여러 채를 철거하여 공사관의 남쪽 영역을 확장한 모습이 나타난다(그림 10). 확장된 부지 경계에는 새로운 담장이 신축되어 있고, 기존의 담장도 일부 존치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러시아 공사관의 부지 경계는 구 함춘원의 담장 중 양호한 상태로 남은 것을 재활용한 구획선도 있었지만, 진입로가 있는 남쪽 일대는 여러 채의 민가를 매입·확장하여 함춘원의 공간 범위를 훨씬 초과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함춘원의 남쪽 담장도 철거되었음은 물론이다.



그림 10. 러시아공사관 완공 직후의 전경[23]

## 3) 함춘원 동측 담장: 사진 C

표 1의 사진 C는 1890년대 초로 추정되는 시점에 월터 힐리어가 러시아공사관의 공사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다. 전면에 계양대가 나타난 곳은 미국공사관인데, 이런 구도로 볼 때 시점장은 배재학당 부근으로 추정된다. 화면 우측 상단 러시아공사관의 위치에는 신관의 기반공사가 끝나고 건물의 기초를 세우고 있는 장면이 흐릿하게 나타난다. 여기서 좀 더 우측으로 시선을 옮겨보면 사선 형태의 담장이 나타나는데, 이 담장은 함춘원의 원장과 관련성이 큰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11. 러시아공사관 서쪽 담장의 선형

(자료: 하퍼스 위클리, 1897년 7월 24일자 기사 삽도[24])

이와 더불어 러시아공사관이 완공된 뒤에 동일한 담장을 촬영한 사진도 참조된다. 널리 알려진 그림 11은 『하퍼스 위클리(Harper's Weekly)』 1897년 7월 24일자 기사에 실린 삽도이다. 사진에 나타난 셋길은 미국공사관의 이면도로인 고종의 길이다. 구 수어청과 미국공사관을 통과하는 지점에서 러시아 공사관 쪽을 바라보며 촬영한 것인데, 전면에 러시아공사관 동측 담장의 선형이 뚜렷이 나타난다. 언뜻 보기에 이 담장은 새롭게 설치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진 C에 나타난 담장의 위치와 동일하여 기존의 것을 정비·수축한 상태로 여겨진다. 담장 밖 낭떠러지는 구 수어청 내부의 서북쪽 지대이며, 얼마 뒤에 선원전이 건립될 때 화계로 정비된 자리이기도 하다. 급경사로 이루어진 지형 상황을 감안하면, 과거 함춘원과 수어청의 경계가 사진 속 담장과 일치했을 개연성은 충분히 확보된다.

## 4) 함춘원 북쪽 담장: 사진 D

사진 D는 1895~6년경 러시아공사관 정초 후의 전경을 힐리어가 촬영한 사진의 일부분이다. 돈의문로[새문안로]를 따라 언덕 위로 러시아공사관의 북쪽 담장이 중경에 가시되는 것으로 보아, 시점장은 경희궁 내부로 모아진다. 러시아공사관 좌측

으로 시선을 옮겨보면 구 수어청 일대와 영국영사관 1호관이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힐리어가 사진에 담고자 했던 대상은 러시아공사관 본관과 거의 같은 시기에 착공하였지만 1년 만에 정초한 영국영사관 1호관의 모습이었겠으나, 힐리어의 다른 사진에서 확인되듯이 사진에는 정동에서 가장 높은 언덕에 건립된 러시아공사관이 더욱 돋보이게 잡혀있다. 사진에서 어렵듯이 나타난 러시아공사관 내부를 살펴보면 비교적 높은 지대 위에 정원을 조성한 모습이며 산책로와 정자로 보이는 건물도 희미하게 나타난다. 또한 공사관 담장 좌측으로는 수어청을 둘렀던 또 다른 담장도 확인된다. 이 담장은 함춘원에 속한 담장과 이격된 것으로 보이지만, 1899년 러시아공사관 배치도에는 두 담장이 남쪽으로 진행하면서 만나는 것으로 그려졌다<sup>25)</sup>.

1886, 1899년 공사관 배치도에서 공사관 북쪽 담벼락 부분의 등고선과 마찬가지로, 사진 속 담장 아래는 가파른 경사지가 보인다. 함춘원 동측 경계부와 같이 낭떠러지 위에 담장이 설치된 것인데, 같은 이유로 이곳 역시 함춘원의 경계와 근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조성한 지 얼마 안 되어 보이는 상태나 끊어진 곳 없이 균일하게 이어진 것을 보면, 이 담장은 공사관 신관 건립 당시에 새로 정비된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궁 안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언덕에서의 민간 조망 문제 해결하기 위해 만든 별원의 조성목적에 상기해 본다면, 함춘원에도 동일한 위치에 담장을 설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특히 공사관 북쪽 지대는 경희궁 맞은편에서 대내가 수월하게 조망되는 위치였기 때문에, 이곳에 담장을 설치하지 않고는 민간의 등망을 제어할 수 없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 이유로 러시아공사관 북쪽 담장은 함춘원 담장의 위치와 크게 다르지 않았고, 아마도 종래의 낮은 담장을 수리하고 끊어진 곳은 새로 쌓는 방법으로 수축된 것으로 여겨진다.

다른 사진을 교차로 살펴보면, 공사관 북쪽 담장은 1901년 에밀부르다레가 촬영한 사진에서 드문드문 목재로 만든 가설벽이 지지하고 있는 상태로 나타난다(그림 12). 비탈면 위에 세운 담장이었으므로 폭우에 허물어지는 일이 빈번히 발생했고 임시방편으로 보수했던 상황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조선왕조실록』에서 함춘원, 상림원의 담장을 수리했던 기사가 자주 등장하는 것과 상통한 장면이기도 한데, 침하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지형의 취약함과 그때마다 발생하는 보수의 번거로움은 구릉지의 경사면을 둘러 담장을 쳤던 별원에서 항상 발생했던 문제이기도 했다.

## 5) 함춘원 북서쪽 담장: 사진 E

이상에서 러시아공사관 북쪽 외곽선이 과거 함춘원의 담장 경계와 근사했던 점을 진단하였다. 다만 북서쪽 모서리 부분은 명확하지 않다. 힐리어가 남긴 사진 중에는 러시아공사관 내부



그림 12. 에밀부르다레(Emile Bourdaret) 저 『EnCorée』(1904) 수록 사진에 나타난 러시아공사관 북쪽 담장[25]

에서 촬영한 사진들이 있다. 예컨대 전계한 그림 2a는 러시아 공사관 건물 내부에서 영국영사관과 수어청 일원을 찍은 것이며, 표 1의 사진 E는 사진 D와 시점을 바꾸어 공사관 내부에서 돈의문, 새문안로 및 경희궁지가 나타나도록 구도를 잡은 것이다. 사진 E에 나타난 공터는 완공 직후의 러시아공사관 내부 북서쪽 뜰의 모습이다. 전술하였듯 담장 모서리 부분의 돌출된 부분은 1885년과 1886년 공사관 도면에서 정문의 위치로 고려된 곳이었다. 앞에서는 좁은 흠길이 돈의문로와 통했다는 베베르의 기록을 고려하여 이 위치에 함춘원의 출입문이 있던 것으로 설명한 바 있다. 그런데 담장 안쪽의 상황을 살펴보면 지반이 평평하게 마무리되어 인위적으로 땅을 고른 흔적이 역력하다. 공사관 북쪽 지대가 높고 울퉁불퉁했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인데, 그 단서는 1886년과 1899년 2종의 공사관 배치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선 사진 E는 1899년 실측 배치도의 상황과 맞아떨어진다. 모서리 부분이 평평하게 정지된 것이나 남쪽으로 갈수록 지형이 점차 높아지는 등고선의 표현도 사진과 부합되는 도상이다(그림 13a). 그러나 건축전의 지형을 반영한 1886년 배치도에서는 좁은 간격의 등고선들이 겹쳐있는 경사지로 그려진 점이 확인된다(그림 13b). 따라서 사진에서 담장 안쪽의 지반은 경사지를 절토한 후 평평하게 지면을 다짐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사진 D에서 살펴본 공사관 북동쪽의 경우, 정원과 산책로를 만들면서 일부 땅을 깎아내기도 하였으나 이처럼

럼 심하게 지형을 평탄화한 것은 아니었다.



그림 13. 러시아공사관 배치도에 나타난 북서쪽 모서리 부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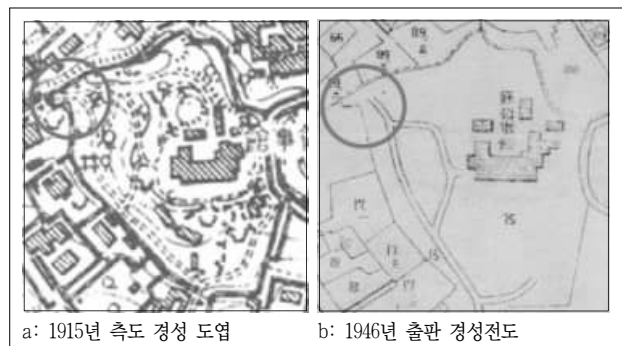


그림 14. 근대기 경성지도에 나타난 러시아공사관 북서쪽 돌출부 (자료: 서울역사박물관 제공)

공사관 북서쪽에 과도한 정지작업이 이루어진 까닭은 초기 계획안의 대문 위치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추정하자면, 건물의 건축 전에 사전적으로 진입부의 땅을 고른 시도가 있지 않았을까 한다. 혹은 장래에 이곳에 문을 설치하거나 추가적인 건물을 지으려 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후 한참 동안 서북쪽 모서리의 평지는 산책로가 연결되는 변화가 있었을 뿐 사진 속 모습 그대로 유지된 점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돌출된 담장 형태는 1915년 측도 『경성』 도엽을 비롯한 일제강점기 경성지도에서 나타나며, 광복 직후에 출판된 1946년 『경성전도』에도 사진과 같은 구획선을 보이는 담장의 형태가 이어지고 있어 한국전쟁 직전까지 러시아공사관 건물과 함께 존속했음을 알 수 있다.



#### 6) 함춘원의 실지(實地) 경계

러시아공사관의 부지는 기존의 함춘원 담장을 기준으로 진입로가 있는 남쪽 민가 다수를 매입·확장하여 마련되었다. 위 사진분석에서 파악된 결과에 의하면 함춘원은 주변 가사(家舍) 영역 및 수어청과 경계가 뚜렷이 구분되어 있었으며, 완만한 구릉지로 이루어진 정상부에 한정하여 담장을 두른 특징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담장의 위치 정보를 러시아공사관 배치도에 표기해 보면 그림 15의 형태로 표시된다. 여기서 추정된 외곽선은 확정하기 어려운 북서쪽 일대와 담장이 확인되지 않았던 북동쪽 일부 구간이 포함된 함춘원의 최대 추정 영역이다. 표시된 A-B-C 구간은 함춘원 담장에 인접하여 민가가 들어섰던 지역이며, D 구간은 수어청과 담장을 맞대고 있던 부분이다. 민가의 분포와 지형 여건에 의해 더 이상의 확장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본다면, 함춘원의 본래 영역은 A~D와 같은 형태의 담장으로 둘러싸인 공간 내부로 한정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사진자료가 제한적이라 일부 구간의 경계선을 추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나, 민간 주거지역 및 숲·낭떠러지로 식별되는 영역과 대별해 본다면 함춘원의 대략적 경계선이 유추될 수 있으리라 본다. 당시 인구 과밀화로 인해 가용한 택지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사진에서 주택 영역의 전진이 멈춘 고점의 한계 지점은 함춘원과의 경계부로 볼 수 있다. 물론 그러한 경계에 어김없이 퇴락한 담장의 형상이 존재했던 것도 참조되는 부분이다.

이상에 의해 함춘원의 점유 영역과 경계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첫째, 함춘원은 정동 일대에서 마치 테피식 산성과 같이 높은 지형에 담장을 에워 쌓은 고립된 영역으로 존재했으며 둘째, 러시아공사관이 이 터에 자리를 잡으면서 기존 함춘원을 점유한 채로 부지의 경계를 잡았다. 셋째, 함춘원의 영역은 러시아공사관 북편에 치우친 공간 곧, 공사관 부지 면적의 절반 가량의 범위로 상정된다. 그렇다면 본 연구에서 검증해 보고자 했던 함춘원 관련 통설에 대해 답을 내릴 수 있겠다. 함춘원은

경희궁에 부속된 별원이자 러시아공사관의 건립과 함께 사라진 시설이었으므로 1897년 이후 조영된 선원전·경운궁의 후원이나 배후림으로 보는 견해는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선원전 화계를 상림원의 잔존 형태로 보는 시각 역시 부화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겠다.

## IV. 결론

본 연구는 상림원으로 알려진 함춘원이 경운궁의 후원이나 선원전의 배후림이라는 통설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경희궁 별원으로서 함춘원의 실지 경역을 고찰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885년 재조선 러시아 임시공사로 부임한 베베르는 경희궁이 폐궁으로 전락하면서 불용지로 남아있던 함춘원 언덕 2헥타르를 조선 정부로부터 매입하였고 추가로 인접한 민가와 농경지를 사들여 함춘원을 초과하는 영역을 러시아공사관 부지로 확정하였다. 이 면적은 일제강점기에 조사된 러시아 서울주재 공사관의 부지 면적인 6,194.2평(약 20,476㎡)과 근사한 수치로서 관유지였던 함춘원 전체 영역이 매각된 사실을 설명해 준다.

둘째, 러시아공사관 부지확보 및 신관 건립을 위해 작성된 3종의 도면을 분석한 결과, 함춘원 내부는 2개의 낮은 봉우리가 남북으로 존재했음이 확인된다. 1895년 완공된 러시아공사관의 정문은 남쪽 정동로와 통하도록 위치를 잡았으나, 초기 도면에서 출입문은 북서쪽 새문안로 쪽으로 계획되었다. 베베르가 처음 공사관 부지를 매입했을 때 이 위치에 좁은 출입구와 흙길 이 있어 새문안로와 통한다고 묘사한 기록을 고려해 볼 때, 함춘원으로 진입하는 관리 동선과 원문(苑門)이 애초부터 이 위치에 있었고, 러시아공사관 역시 여기에 출입문을 낼 계획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 동쪽에 만들어진 후문은 1892년 미국공사관의 사도로 개설된 이면도로와 연결되었는데, 이로써 러시아공사관이 기존 도로체계를 활용한 문의 위치를 계획하였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함춘원 최초 지형의 훼손은 러시아공사관 신관 공사 때 이루어졌다. 당시 높은 언덕 상부를 절토하여 대지가 조성되었고 그 결과 2단의 계단식 지형이 만들어졌다. 본관 및 서기관동 등 부속동이 세워진 지반은 가장 높은 봉우리를 깎아 평평하게 다짐하여 만들어졌고 이때 다량의 토량이 정치작업에 사용되었다. 본관 북쪽 지대도, 높은 산지를 깎아 평평하게 지형을 고른 흔적이 역력하고, 조망이 수월한 조건을 활용하여 산책로와 정자가 있는 정원이 조성되었다. 이는 궁궐이 내려다 보이는 높은 지형에 민간의 조망을 막기 위해 별원을 조성했던 이유와 상통한 공간 이용으로 볼 수 있다.



a: 추정된 함춘원 담장 경계

b: 보정 선형

그림 15. 경희궁 별원 함춘원의 최대 추정 영역



넷째, 1880~1890년대에 촬영된 정동 일대의 사진에서 미국, 영국, 러시아공사관 주변의 공간 변화를 살펴보면 부분적이나 마 함춘원 담장의 형태가 노출되어 있었다. 사진분석 결과 함춘원은 러시아공사관 부지의 절반가량에 해당되는 부지 북측 영역을 구성하고 있었다. 또한 공사관의 북쪽, 서쪽, 동쪽 담장이 함춘원의 본래 원장과 근사하게 나타난 점이 확인되었다. 대문이 위치한 공사관 남쪽이 경우, 민간 매입 면적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여러 자료에서 민가 수십 채를 매입한 정황도 살필 수 있었다.

다섯째, 경희궁 별원 함춘원은 1885년경에 러시아에 매각됨으로써 장소성이 상실되었으며, 신관 건립 뒤로는 여러 동의 건물과 정원이 있는 공사관의 핵심적인 영역으로 변용되었다. 러시아공사관 이전 함춘원은 구릉지를 에워 쌓은 고립된 영역으로 존재했고, 러시아공사관이 함춘원을 점유한 채로 부지의 경계를 잡은 뒤로는 부지 면적의 절반을 넘는 정도의 영역을 구성하고 있었다. 따라서 러시아공사관 북측에 함몰되어 있던 함춘원은 1897년 이후 조영된 선원전이나 경운궁과 시간적·공간적 맥락이 닿아 있지 않으며, 선원전의 배후림 또는 배경림으로 보는 시각도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주 1) 본 연구는 경희궁 함춘원을 ‘궁궐 별원’으로 규정하는 한편 각 이궁의 별원 역시 함춘원으로 통칭하였다. 대중적 인식에서 별원은 생소한 용어이며, 창경궁 홍화문 건너편에 있던 함춘원이 유일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본고에서 전제할 별원의 개념과 명칭 문제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설명이 필요하다. 기존에 함춘원을 범주화하여 지시했던 용어들은 ‘후원’, ‘원유’, ‘금원’, ‘상림원’, ‘외원(外苑)’ 등이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어느 정도 의미가 소통되기도 하지만, 대상에 대한 실제적 인식을 반영하지 못하며 언어적 정련을 거치지 못한 임의적 지시어라는 한계를 지닌다. 즉, 함춘원의 속성과 특정 맥락을 잘 드러내 주지는 못하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과거의 언급이 함춘원과 같은 궁원을 어떤 개념으로 구분했는지를 먼저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고는 중종에서 명종 연간의 문신 신광한(申光漢)의 시 『함춘원(含春苑)』의 첫 구에 나오는 “녹음 짙은 별원의 호칭이 ‘함춘원’이다[薊蘿別苑號含春]”라는 기술에 주목하였다. ‘別苑號含春’은 함춘원의 공간 형식을 별원으로 볼 수 있는 사료적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이 시문이 작성된 내밀한 사정을 살펴보면 ‘별원’이란 개념을 공식화해도 무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시의 제목인 ‘함춘원’은 중종 33년(1538)에 중종이 임시한 신하들에게 지어 바치라고 내린 시제 중 하나였다. 이때 신광한의 제시(題詩)가 수석을 차지했다고 하므로, 왕실은 물론 조정 관료들 사이에서 별원이라는 원유의 형식으로 함춘원을 이해했다는 정황도 확보된다. 실제 ‘함춘원’이 별원을 통칭하는 상용적 용어로 발전했음은 여러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우선 18~19세기 궁궐 별원이 ‘함춘원’이라는 통합된 제도와 명칭으로 발전된 양상은 정조 연간 『한경지략(漢京識略)』에서 시초적 발상을 읽을 수 있다. 여기에는 경희궁 개양문 밖 남쪽 언덕에 함춘원이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동시에 창경궁 홍화문 밖 언덕도 함춘원으로 부른다고 하였다. 또한 19세기 초의 문헌인 『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考)』에도 당시 궁궐로 남아있던 경복궁을 제외한 도성의 궁궐에 각각 ‘함춘원’으로 명명된 원유가 소재한 것을 기

록하고 있다. 열거된 함춘원은 각각 창덕궁 요급문 서쪽의 함춘원, 창경궁 홍화문 동쪽의 함춘원, 경희궁 개양문 남쪽 건너편 산기슭에 위치한 함춘원으로서, 궁궐마다 하나의 별원을 가지고 있고 각각을 함춘원으로 통칭했음을 알려준다.

주 2) 『성종실록』 15년 10월 16일(庚午): 24년 2월 27일(壬戌)

주 3) 『효종실록』 8년 2월 16일(己丑), 18일(辛卯)

주 4) 『광해군일기』 11년 8월 25일(乙亥)

주 5) 관찬사료에서 창덕궁 상림원이나 창경궁 함춘원을 정비한 기록들이 드문드문 나타나지만, 경희궁 함춘원은 한 건의 보수 기록조차 찾을 수 없다. 이는 경희궁의 별원이 오랜 시간 왕실의 이목을 받지 못한 공간으로 존속했음을 방증해 주는 부분이다. 다수의 도성도에서 함춘원이 담장으로 둘러싸인 영역으로 표현되어 있고 금원을 뜻하는 ‘상림원’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궁원의 위상으로 인식된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사료에서 경희궁 별원의 존재감은 쉬이 드러나지 않는다.

주 6) 최근의 연구 중 주목되는 성과는 『덕수궁 선원전 영역의 조정 복원 정비 계획』(2020)을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상림원과 선원전을 긴속된 관계로 보는 기존 통설을 제고하여 선원전의 배후림이 상림원과 별개로 독립적으로 조성된 녹지라는 새로운 의견이 제시되었다[6].

주 7) 3종의 도면과 관련 보고 문건들은 러시아 국립문서보관소를 비롯한 러시아연방 외무성 제정러시아 대외정책문서보관소, 러시아연방 국립문서보관소 등 다수의 보관소에 분산된 자료로서, 국내에 원본이 공개된 적은 없고 복사본 내지는 디지털 이미지가 전시 및 학술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필자의 판단에는 3종의 도면 말고도 이 시기에 작성된 도면이 최소 2종 이상 더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나, 자료의 실존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주 8) 일본 하도급 업자인 치오고의 역할은 전적, 명세서, 설계설명서 등 도면을 제외한 설계도서의 작성으로 기록되어 있다.

주 9) АВПРИ, ф.150, оп.493, д.183, лл.14-37о6

주 10) АВПРИ, ф.150, оп.493, д.36, лл.1-56о6

주 11) 1890년 베베르가 본국 외무성에 보낸 서한의 내용에서 사바틴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새로 작성된 설계도에 대해 본부에 보고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설계도는 러시아 청년 세레진 사바틴씨가 작성한 것입니다. 이 청년은 서울 왕궁에서 조선 국왕을 위해 두 층으로 된 아름다운 건물을 설계한 바가 있습니다. 본인은 도쿄에서 초빙했던 일본인보다 그가 더 열성적으로 일을 수행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게다가 공사관을 러시아 사람이 건립한다면 더욱 좋다고 생각합니다.”[6: 12] (АВПРИ ф.191, оп.768, д.15, лл.66-67о6)

주 12) 미국공사관을 비롯한 각국 공사관은 수어청 남쪽 언덕을 경계로 입지해 있었다. 미국과 영국의 공사관 부지는 본래 민가 소유였으나 차례로 매각되어 1883년에 미국공사관이 개관되었고, 이듬해에는 영국영사관을 개관하여, 1891년 1호관, 1892년 2호관이 차례로 건립되었다.

주 13) 서울대 규장각 소장 『각부청의서존안(各部請議書存案)』 20책 『궁내부 관련 선원전 밖 궁장 신축과 가사가(家舍價)를 예산의 지출해달라는 청의서 제91호』에 따르면, 선원전의 건축부지가 수어청 터만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었고 인근의 민가를 매입한 결과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10: 230].

주 14) 기존 ‘아관파천’의 용어는 친일적·신민사관적 해석 틀에 의해 재단된 자책(自責)·자비(自卑)·자굴(自屈)·자멸(自蔑)을 조장한 용어로 지적된 바 있다. ‘아관파천’임을 주장한 정치철학자 황태연의 정의를 참조하면 다음과 같다: “아관·파천은 전통적 의미의 파천(도성을 버리고 지방으로 피란 가는 국왕의 도주, 즉 royal flight)이 아니라 고종이 갑오왜란[동학 국민전쟁을 진압하여 대한제국의 명줄을 끊은 침략전쟁]을 계기로 주둔하기 시작한 왜군과 날뛰는 친일파들을 물리칠 망명정부를 세우기 위해 감행한 근대 국제법상의 ‘망명(asylum)’이었다. 러시아공사관에서 수립된 내각

은 '제1차 국내망명정부'이고 대한제국은 대일 독립투쟁을 위해 새로운 '확장된 망명지' 경운궁에 세워진 임시정부로서 '제2차 국내망명정부'였다. 제2차 국내망명정부는 1919년 상해에서 수립된 '해외망명정부'의 전신, 즉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전신이다." [14: 11]

- 주 15) 『고종실록』 및 『승정원일기』 34년(丁酉) 6월 7일(양력), 6월 19일(양력), 6월 27일(양력).
- 주 16) 『황성신문』 1899년 6월 3일 잡보
- 주 17) 친위대와 지원받은 모집 병사의 훈련은 고종의 요청으로 러시아에서 파견된 장교와 하사관들이 지휘했다. 이러한 호위병들의 훈련장 중에는 무무정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훈련을 마친 조선 병사들은 교육을 받은 지 약 2개월 만인 12월 중순 경 이미 왕궁을 호위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고종은 이를 확인하고 1897년 2월 20일 경운궁으로 환어했다고 전한다. [14: 653-657]
- 주 18) 전술한 바와 같이, 고종 때의 경희궁은 경복궁 중건공사로 인해 승정전, 회상전, 정심각, 사헌각, 흥정당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전각이 이진되어 대부분이 공터로 남겨진 상태였다. 또한 전각의 철거 후에는 빈 땅의 대부분을 뽕나무밭으로 조성하고 양잠소를 설치하는 등 양잠업을 권장하는 상징적인 장소로 이용되었는데, 이마저도 고종 33년(1896년) 다른 곳으로 옮겨감에 따라 경희궁은 대규모 군사훈련과 사열을 거행하는 장소로 전용될 수 있었다.
- 주 19) 1885년 조선 정부가 제안한 부지 매매가는 주변 부지 포함 2,200달러였다고 기록되었으나, 베베르가 1884년 11월에 외무성에 제출한 서울 공사관 유지금 내역은 건물 신축 예산 약 6만 달러, 공사 사택 신축비 3만 달러에 부지 구입비가 5,000달러로 기록되어 있다 [8: 138]. 불과 1년 만에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낮아진 것이다. 이에 대해서 노주석(2009)은 베베르가 1년 전 감정한 가격보다 훨씬 값에 넘긴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16: 101-102], 심비르제바와 레보쉬코(2009)에서 지적되었듯이 실제보다 부풀려진 추정가였을 가능성이 크다 [6: 12].
- 주 20) 1927년 작성된 『노국영사관재산관리관계서류』(국가기록원 CJA000 2305)는 총 16개의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마지막 자료가 『보관목록여각』이다. 여기에는 러시아 영사관 소속 7개 도시의 부동산과 동산에 소유 재산대한 목록 정리가 되어 있다.
- 주 21) 고종의 길에 대한 연결 구조는 『덕수궁배치도』(그림 4)와 이순우(2012)에서 찾아낸 『독립신문』 1898년 7월 30일 기사를 대조해 보면 이해가 쉽다. 해당 기사 내용은 "[파수 지엄]전 수어청 앞길로부터 아라사공관 뒷문 길과 영국공관 뒷문 길로 대궐 서편 회국문 앞길까지 요사가 병정들이 엄밀히 파수하여 내왕하는 사람들이 그 길로는 다시 통섭을 못하게 되었다더라" [19: 137]이다. 이를 볼 때 고종의 길의 공간 범위는 경운궁에서부터 회국문에 이르는 통로를 빠져나가는 구간, 영국영사관 곁을 지나는 구간, 다시 문 하나를 통과하여 선원전 곁을 지나 러시아공사관 뒷문에 이르는 구간을 아우른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전 수어청 앞길'의 경우 선원전 북쪽 담장 밖으로 민가 지역에 있던 골목길로 짐작되며 기사의 내용을 볼 때 이 길이 러시아공사관 뒷문과 연결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주 22) 고종의 길은 재조선 미국공사였던 어거스틴 허드가 1892년 미국공사관에 딸린 사로(私路)로 만든 것이 시초이다. 이후 경운궁과 각국 공사관으로 드나드는 통로로 사용되고 일련의 정치적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고종의 길은 과도한 중요성을 띄게 되었다 [19: 137].
- 주 23) 르마노프가 1896년 6월 2일 베베르에게 보낸 서신에는 조선국왕의 신변안전을 위한 도덕적 의무를 전달하고 있는데(러시아 국립해군성문서보관소 РГВМФ II, ф.417, оп1, д.1340, лл.347-349.), 여기서 말하는 '도덕적 의무'는 러시아 부대가 궁궐로 투입되는 재량이 러시아공사에 있음을 골자로 한다 [14: 648-650].
- 주 24) 이후 비슷한 구도로 촬영한 사진들이 있기도 한데, 배재학당이 들어선

언덕이나 지금 서울시립미술관이 있는 언덕 부근이 아닐까 한다.

- 주 25) 1902년에는 공사관 북벽 아래에 설치된 윤교를 잇는 통로가 이 두 담장 사이의 움푹 들어간 부분에 설치되었다.

## REFERENCES

- [1] 김정동(2004). 고종황제가 사랑한 정동과 덕수궁. 서울: 도서출판 발언.
- [2] 김정신, 발레리 알렉산드로비치 사보스텐코, 김재명(2010). 구한말 서울 정동의 러시아동사관에 대한 복원적 연구. 간족역사연구, 19(6): 61-78.
- [3] 문화재청(2014). 덕수궁 선원전 복원정비 기본계획. 대전: 문화재청.
- [4] 문화재청(2019). 덕수궁 선원전영역 학술조사연구 (건축·미술사) 연구보고서. 대전: 문화재청.
- [5] 문화재청 궁통유적본부(2020). 덕수궁 선원전영역 조정 복원정비 종합계획 연구. 서울: 문화재청 궁통유적본부.
- [6] 따찌아나 심비르제바, 스베틀라나 레보쉬코(2009). 조선국왕 폐하의 건축가 사바전(1860-1921). 국제한국사학회 세미나 자료집, pp.1-19.
- [7] 문화재청(2019). 사바전과 한국 근대기의 건축 영향 관계 연구. 대전: 문화재청.
- [8] 박종효(2002). 러시아 國立文書保管所 所藏 韓國 關聯 文書 要約集. 서울: 한국국제교류재단. pp.127-128.
- [9]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1987). 서울六百年史 文化史蹟篇. 서울: 서울특별시.
- [10] 안창모(2009). 덕수궁 시대의 운명을 안고 제국의 중심에 서다. 파주: 도서출판 동녘.
- [11] 서울특별시 중구청(2018). 구 러시아공사관 종합정비계획. 서울: 서울특별시 중구청.
- [12] 서울역사박물관 전시과(2012). 정동 1900. 서울: 서울역사박물관.
- [13]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원문제공 이미지(<https://www.nl.go.kr/>, 韓國風俗人物史跡名勝寫真帖)
- [14] 황태연(2017). 갑오왜란과 아관망명. 파주: 경계출판사.
- [15] 하원호, 나혜심, 손정숙, 이은자, 이현주, 홍용호(2009). 개항기의 제한 외국공관 연구.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 [16] 노주석(2009). 제정러시아 외교문서로 읽는 대한제국 비사. 파주: 한국학술정보(주).
- [17] 정세정(2020). 러시아 공사관 부지 처리 과정의 국제법적 검토. 국제법학회논총, 65(1): 283-316.
- [18] 한러대화 사무국(2010). 다시 만나는 이웃 러시아: 2010 한러수교 20주년 기념전. 서울: KRД.
- [19] 이순우(2012). 근대서울의 역사문화공간: 정동과 각국공사관. 서울: 도서출판 하늘재.
- [20] <https://www.si.edu/>
- [21] <https://www.nls.uk/>
- [22] <https://www.kunstkamera.ru>
- [23] 버튼 홈즈 저, 이진석 역(2012). 1901년 서울을 걷다: 버튼 홈즈의 사진에 담긴 옛 서울, 서울 사람들. 서울: 푸른길.
- [24] <https://blog.naver.com/chagov/222519327673>
- [25] 에밀 부르다레 저, 정진국 역(2009). 대한제국 최후의 숨결. 파주: 글항아리.

원 고 접 수 일: 2021년 5월 17일

심 사 일: 2022년 1월 12일 (1차)  
: 2022년 2월 26일 (2차)

게 재 확 정 일: 2022년 2월 26일  
3인 익명 심사필, 1인 영문 abstract 교정필